

창세전에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 전이다. 모든 것이 세상이 만들어 지기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언약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모든 것이 그렇다. 내게 평생에 주신 말씀한마디가 모든 것의 끝이다. 오늘 귀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늘은 창세 전이다. 세상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일에는 눈이 열리면 굉장한 응답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주를 만들기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시2:3 그의 결박을 끊고 벗어 버리자, 사람들이 그리한다 이말이다. 하늘에 계신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된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게 제일 좋다. 자기에게 가장 좋다. 종이 되면될수록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마음껏 마음에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 다음 첫째장 엡1:11 모든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로 일하시는 이라고 하셨다. 이분의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써놓았다. 모든일을 그의 계획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완전종일수록 자유를 누리다. 인생정복하게 된다.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모든인간이 다그렇다.문제를 정복하게 된다. 계속 일어나는데 필요없다. 이런상태가되어버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된다. 인간이 무슨짓을 해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 영원히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씩 나올 뿐이다 이런 인간이 무슨짓을 하겠냐 일어난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항상 축복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을 아주 쉽게 표현한 단어가 창세전이다.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근본답이 형성이 된다. 이 답위에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가슴에 딱 담으면 그 피가 뱀의 머리를깨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방정도가 아니고 정복을 한다 시대적인 인생이 된다. 진짜 답나기를 바란다.

1. 창세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듯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창세전이가 핵심적인 단어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썩다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 믿음, 노력이 아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리했냐면 그 깊은 뜻대로 라고 하셨다. 이유는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서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굉장히 죄가 많은데.... 이렇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았으니 놀랍다 지옥을 한번 갔다오면 이것이 어느정도 축복인지 알 것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다. 구원, 내 인생 여기에 다 들어있다. 만일 이 사실에 답이 나면 구원에 확신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한것이기때 내가 무슨일을 해도 여기에는 상관이 없다. 나의 어떤것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세상에 만들어지기전에 끝나버렸다. 나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진짜 들어와 내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 진짜 믿는 것이다. 인생 전체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근본믿음 베이스를 까는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이다. 확실한 언약으로 잡으라 모든 계획과 약속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다. 이런 원리를 볼 수 있는 미리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를 많이 들어놓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할 것 아닌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몇 번있었다 그것이 진짜로 나중에 사람으로 올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착착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예를 든 것이다.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대로 되어졌고 노아는 온 지구에 주인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 하나를 정하고 나 따라 오라고 하셨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것이라고 약속하셨고 2000년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창3:15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어떻게 하실지 설명하셨고 그대로 되어졌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것을 이미 창3:15절에 예언을 하셨다. 그때 재물을 나눌것이고 가나안땅을 차지 할것이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그림처럼 그려놓으셨다. 그리고 700년후에 모세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갈때도 마찬가지 가기전에 이미 70년 정확하게 돌아왔다. 성전이 부서진 것으로부터 재건된 것이 70년이다. 첫포로에서 첫포로 귀환이 70년이다. 포로가 세 번에 거쳐서 갔었다. 이렇게 창세전에 정해놓았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것도 너 개인과 상관없이 나의 결정에 따라 끝내 버렸다.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결정되었다. 그 결정은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구원에서 제외 되었다. 이유는 내 결정 왜 그랬냐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설명 해보야 인간의 뇌로는 이해가 안되다. 무슨 선한일을 하기도 전에 로마서 9장을 집어가서 읽어보라.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다. 부르는 방법, 시기 장소 이미 결정해놓은 것이 창세전이다. 우리의 삶속에서는 절대로 우연이었다. 하나님이 70억의 인구를 다 알고있단말이나?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똑똑한게 아니고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많이 알지만 모른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일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이것을 통해 반드시 복을받을 것이다. 아니왜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복이냐고 말하는사람이 있다 그게 언약의 권세다.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의 피로 너의 모든 것을 뒤집겠다. 이런거 아니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모든 저주를 뒤집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믿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언약을 고백하라 그 언약안에 있는목표가 사단을 박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창세전에 아무것도 만들어 지기전에 결정된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이다. 나는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이라는 것을성경에 기록했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었다. 이것은 기적정도가 아니다. 내가 완전 죄와 저주로 완전망

해야 하는게 그것 때문에 역전이 되어 시대적인 증인이 된 것이다. 반드시 그리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고 고백이다. 이것을 안해서 문제에서 못나온다 하는데 왜 안되냐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에 아직 안들어 왔다. 내가 아직 진짜가 아니요, 진짜가 되면하나님과 정말로 통해버리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짜로 100% 완전히 하시거든요. 그리로 가는 시간표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언을 하면 언약을 누리면 시간이 되면 거들 것이다 성경전체의 결론 요셉, 다윗을 보라 바울, 다니엘을 보라 어려움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있어도 필요없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결정하였기에 아무도 손을 못된다. 창세전이 결정이 되었다. 참 놀랍다. 어째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창세전에 결정이 안되었으면 내가 믿음이 안되는 것이다. 저도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이런 은혜가 이해가 안되었다. 내가 병들어서 교회왔으니 그렇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감사고 은혜고 창세전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 잘되던 못되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은 하나님손에서 벗어날 존재가 못된다 피조물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뜻대로 살면되지 말리되냐고 하지만 피조물은 머리가안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다. 슬픈일이 아니고너무나 감사한일이다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살면 다 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뜻대로 될것이 결정이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자꾸 안되게 한다 마음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긴다 이것이 원죄이고 사단이다 마음에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뱀의머리를 깨라고 약속의 피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되나 안되나 보혈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2.그리스도 안에서

1절1-10절까지 그리스도가 10번나온다. 성경전체는 그리스도 아닌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많이 나온다. 사도바울을 인크라이스트 사람이다. 이 원리들을 설명을 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축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는 그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7절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나를 대신 피흘리고 죽으신 것이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계획이라고 본다. 그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것 지금껏 나중에 있는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도 못말린다. 단어 하나마다 엄청난 뜻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되어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 한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해 뜨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 그를 위해 해가 뜨는 것 악한 인간들은 창조 하신후에 다른데 가셨고 피조물

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를 생각해 보라 기도하면 우리를 계속 지키신다. 우리를 만들고 어디로 가셨는가 왜 그런말을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맨 것을 끊자고... 하늘에 계신자가 웃으심이며 하나님이 비웃으시리이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가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리 할 사람없다.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대한 답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은 당연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고 시스템이다. 하나님의 시스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땅의 모든 것이 약속되어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3칙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도 짝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것만도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그리스도고 좀더 설명한 것이 3칙이다. 언약으로 잡는자는 승리한다. 진짜 언약이 돼서 정말라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고백하면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 피는 죄에서 해방되고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깨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역전시킨다. 인생역전을 시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꾸는 발판인데 조건은 약속의피를 잡는 것이다.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상처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이 치유가 되면 발판이 된다. 꼭 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자에게 증인이 되는 답가진자가 된다. 제자가 1명만 있어도 놀라운데 100명 1000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있다. 여기에 잡히면 지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하나님이 해결 하신다. 때가 있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미 창세전에 결정한일기에 네가 신경쓸것없다 반드시 해결된다 과거를 미래의 발판으로 만든다. 과거에 너무나 슬픈일들이 미래에 굉장한 재산이 된다. 영적재산, 육신적 재산 축복으로 바뀐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다 영원히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참 놀랍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안만나주면 우리는 힘들다 경험해보셨나?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아주 힘들고 폭발을 한다. 내가 어쭙잡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행복하다는것을알 수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는 것은 유일한 길이고 천국 열쇠의 유일한 답이다. 마16: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열쇠를 네게 준다고 이 열쇠가 나고 이 피가 천국열쇠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답이라는 것은 성경에 넘친다. 약속의 피를 잡은 노아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씀의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모세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지않은가 이 언약을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모든 나라가 앗수르에 노예가 되었다 조그마한 공알만한 이스라엘이 꺾어버렸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노예가 된 모든 왕들 모든 나라에대한 증인이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스기야처럼 언약을 잡고 계속 고백하고 누리고 지속하면 동일한 계획을 주실 것이다. 이후에 응답받고 누리게 되면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24, 25.00도 이해되고 응답받아가면 눈이 열린다. 깊은 기도 놀라운 언약 다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777로 인도해 가신다. 성도 여러분 다시한번 창세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 내게 일어나는 것은 그때 결정된 하나님의 일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들어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한번 언약으로 잡으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